

3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 어떻게 끌고가나

향후 5천억 원 투입, 원천기술 확보 주력

글_ 이종건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장 joongghun@mocie.go.kr

올 상반기 부품·소재산업은 사상 최대 수준인 96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해 전체 무역흑자의 76.7%를 차지하는 등 우리 나라 무역흑자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소비로부터 시작된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설비투자도 아직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과 내수간 경제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중국 및 아시아 지역 등과 FTA 체결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던 중국 경제가 이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올 상반기 부품·소재산업 흑자 사상 최대

이렇게 급변하는 대내외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최근 가장 크게 부각되는 산업이 바로 부품·소재산업이다. 그러나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면에는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부품·소재산업이 대일 무역적자의 주범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만성적 적자산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거론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부품·소재의 대일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반드시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만은 아니며 한·중·일 3국의 국제적인 분업 구조하에서 물류비용 및 가격경쟁력을 감안한 전략적인 시장전환에도 원인이 있다. 또한 부품·소재산업은 이미 1997년부터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흑자폭이 150억 달러 내외까지 확대되었다.

둘째, 부품·소재의 수입의존도가 커

우리 나라 제품의 국산화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최근 첨단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되면서 국산화율 분석에는 조사 품목과 함께 조사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신제품 출시 직후 국산화율이 낮더라도 부품·소재개발이 진행될수록 국산화율은 상승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보유한 MP3 플레이어(83%), PDP-TV(81.8%) 등 일부 첨단 품목은 높은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일 FTA의 추진은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인식이다. 물론 한·일 FTA가 체결되어 관세장벽이 철폐될 경우 단기적으로 일본 제품의 수입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보완대책을 병행할 경우 FTA의 체결은 우리에게 위기가자 기회이다. 실제 과거 수입선다변화가 해제되었을 때 일본의 '코끼리밥술' 때문에 국내 전기밥술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대부분의 대기업은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하였으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경쟁력 제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은 찾아보기 힘들며 지난해에는 전기밥솥 중주국인 일본에까지 국내 전기밥솥이 진출한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은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종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도 변함없는 사실이다.

국내 부품·소재의 기술수준은 현재 선진국대비 80%에 불과해 원천기술이 포함된 첨단 부품·소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해 원천기술 확보에 필요한 대규모의 R&D투자역량이 부족하다. 또한 아직 국내 부품·소재의 신뢰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수요 대기업은 구매를 기피하고 있으며, 수요기업과 부품·소재기업간 종속적 계열화관계로 안정적인 성장기반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중핵기업 2010년까지 300개 육성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17일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발전전략은 과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기업의 활동단계별 역량진단과 일본 부품·소재의 수입구조 분석 등 다양한 분석을 기반으로 민·관전문가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수립했으며 참여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수요대기업과 중소 부품·소재기업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품업체와 협력을 통해 모듈단위의 부품 생산이 가능하고 수요기업과 대등한 관계형성이 가능한 부품·소재 중핵기업을 2010년까지 3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둘째, 급변하는 대내외 세계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도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미래형 중장기 대형과제에 집중하여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5천억 원을 투입, 국내기업의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자체 개발역량이 취약한 부품·소재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와 기술도입을 추진하여 자체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노무라 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설립한 'Japan Desk'를 적극 활용하고, EU, 미주, 아시아 등 주요 권역별로 투자유치와 시장개척 목적의 로드쇼를 개최할 계획이다.

넷째, 국내 개발에 성공한 부품·소재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기관과 연계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함께 수요기업의 협력약정을 바탕으로 하는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조성함으로써 대규모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이러한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전전략의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발전전략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정부

는 향후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10대 전략 부품·소재를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이 품목을 중심으로 R&D에서 사업화, 설비투자에 이르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번 전략 부품·소재의 선정은 무엇보다 민간기업 자발적으로 품목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투자계획을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전략 부품·소재의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원천기술 확보에 성공하고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할 경우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부품·소재를 자급할 수 있는 산업전반에 걸친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부품·소재산업이 우리 경제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도 그리 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육성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계획수립과 함께 이의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이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경쟁력 제고의 노력이 결합될 때 국내 부품·소재산업이 발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 전체의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글쓰이는 미국 밴더빌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